

# 스물네 개의 눈동자 영화 마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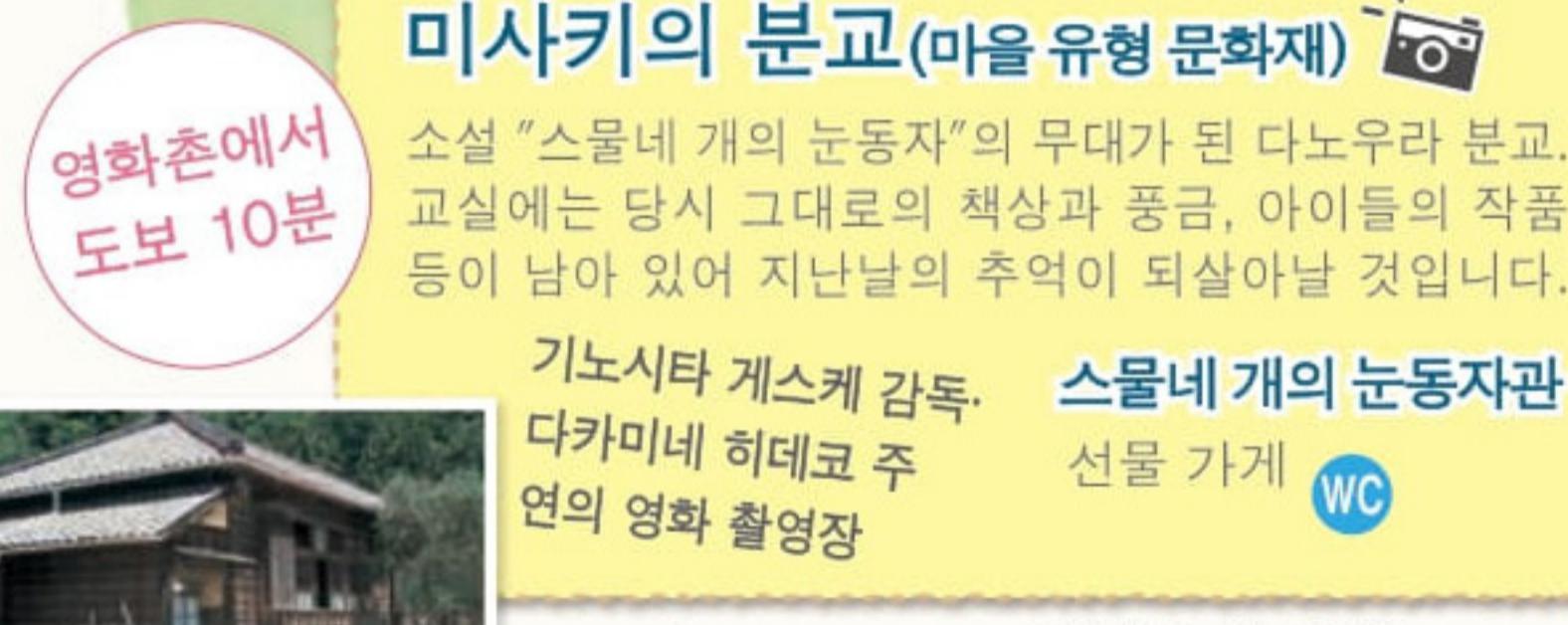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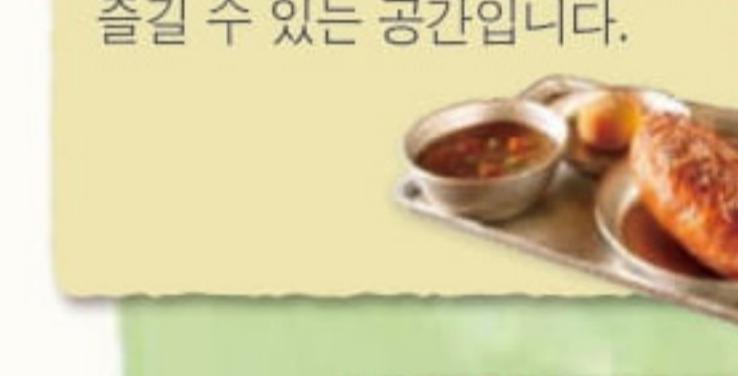
쇼도시마 섬을 무대로 한 쓰보이 사카에의 명작 "스물네 개의 눈동자"를 비롯하여 영화 "8일째의 매미" 등 수많은 드라마·TV 광고 촬영에도 이용되는 쇼와의 마을을 재현하였습니다.



노마 초등학교 다노우라  
분교의 촬영 세트장. 창밖  
으로 펼쳐진 세토내해에  
마음이 치유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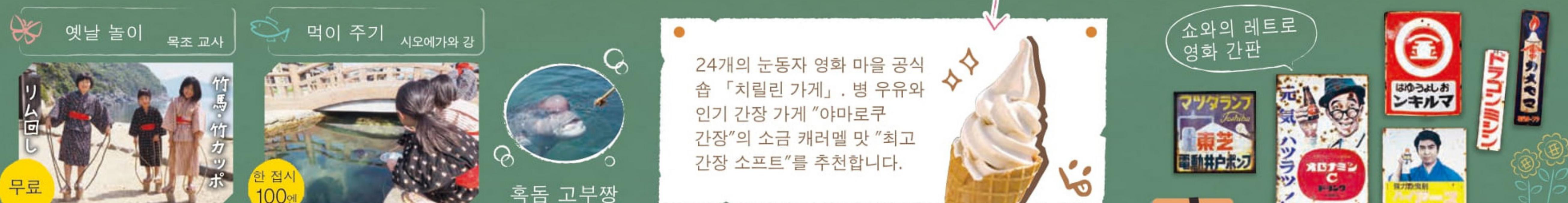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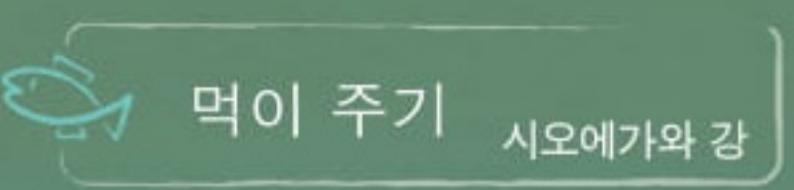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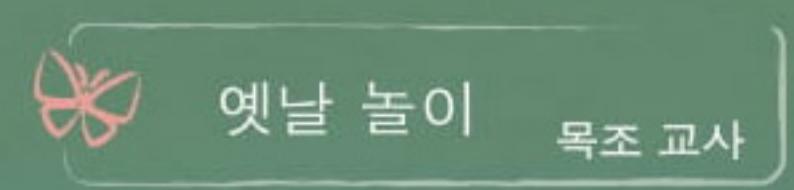


쇼와의 분위기에 둘러싸여  
일본 영화의 영상이나 사진을  
볼 수 있는 갤러리.  
쇼도시마 섬의 민속자료에  
둘러싸인 레트로한 분위기  
속에서 쇼와의 그리운 급식  
세트나 쇼도시마 섬의 인기 B  
급 구르메 "하시오 덮밥" 등을  
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.



영화촌 앞 700m

입구(접수처)



간장 곳간을 본떠 만든 은근한 정취를  
풍기는 건물의 2층. 여배우 다카미네  
히데코 갤러리와 극단☆신칸센 부스가  
병설되어 느긋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의 북  
카페. 창문에서 바라본 경치는 최고입니다.



다자이후 덴만구에서부터 영혼을  
나눠 모신 덴만구. 세익스피어의  
명언이 적힌 오미쿠지도 추천합니다.



"스물네 개의 눈동자"의 원작자  
쓰보이 사카에가 애용한 세간이나  
자필 원고를 전시하고 있습니다. 또  
쓰보이 시게지, 구로시마 덴지의  
코너도 있습니다.

